

옥소 권섭의 「遊行錄」에 나타난 대상체험의 양상과 유람의 의미

최 은 숙*

- I. 서론
- II. 기승을 통한 낯설음의 체험과 승고
- III. 친근한 만남을 통한 유대감 공유와 해학
- IV. 고정관념의 탈피와 이(異)문화에 대한 공감
- V. 옥소의 산수유람이 지닌 의미

국문초록

본고는 옥소 권섭의 「유행록」에 나타난 대상체험의 양상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옥소의 유람이 지닌 의미를 정리한 글이다. 그동안의 연구가 옥소의 산수유람을 현실과 분리된 공간으로의 도피 혹은 일탈의 과정으로, 정신적 자유의 획득이라는 차원에서 주로 이해했다면, 본고는 대상체험의 양상을 미적 체험과 연결하여 이해함으로써 유람의 동기와 의미를 차별적으로 해석하였다.

산수유람의 과정에서 옥소가 체험한 대상은 자연, 인간, 문화의 층위

*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 olive7007@knu.ac.kr

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상체험의 양상은 각각 기승(奇勝)을 통한 낯설음의 체험과 승고, 친근한 만남을 통한 유대감 공유와 해학, 고정관념의 탈피와 이(異)문화에 대한 공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상체험의 양상은 옥소가 체험한 산수 유람이 현실과 동떨어진 일탈 혹은 도피의 과정이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세계로 확장하고 연결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옥소의 산수유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형하는 과정이었으며, 산수유기인 「유행록」은 세상과의 연결을 도모하는 적극적 글쓰기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옥소, 권섭, 유행록, 자득론, 산수유기, 유람, 유산(遊山), 몽기(夢記), 해산록(海山錄)

I. 서론

본고는 옥소 권섭(1671~1759)의 산수유기에 나타난 대상체험의 양상을 살펴, 그의 산수유람이 지닌 의미를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옥소는 숙종~영조 대를 살아간 인물로서 노론 별열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평생 정치와는 거리를 두면서 다수의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그림과 음악 향유에 심취했던 인물이다. 특히 자연의 진경(眞景)에 취해 평생 전국을 유람하며, 이에 대한 꼼꼼하고 흥미로운 글을 풍성하게 남겼다.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산수벽이 있다고 하면서, 노년이 되어서도 산수유람을 멈추지 않았고, 현실에서 가볼 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몽기(夢記)를 남기기도 했다. 옥소에게 산수유람은 그의 삶 자체였고, 유람의 체험을 담은 글은 그의 삶을 조망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옥소의 유람에 대한 관심과 경험은 「유행록(遊行錄)」을 통해 집중적으로 살필 수 있다. 여기에는 <해산록(海山錄)> 7편을 비롯한 약 40여 편의 글이 실려 있다.¹⁾ 「유행록」은 금강산을 비롯한 전국 명산과 관동팔경, 영호남의 절경, 다양한 명승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유람지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 여행지에서의 경험과 생각을 실은 글이다. 기존 산수유기와 차별된 체제와 서술, 흥미로운 일화와 옥소 개인의 솔직한 감성 등을 그대로 담고 있어 산수유기의 변모와 특징에 대한 연구, 조선 후기 양반사대부의 유람 관련 연구, 옥소 개인에 대한 작가론적 연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가능하다.

옥소의 「유행록」은 조선 후기 산수유기 및 글쓰기의 변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²⁾ 조선전기 창작된 산수유람과 산수유

1) 옥소의 「유행록(遊行錄)」은 문경새재박물관에서 『삼천에 구백 리 머나먼 여행길』(민속원, 2008, 1~400쪽)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본고의 인용문은 이 책의 원문과 번역을 참조하였다.

2) 홍성욱, 「권섭의 산수유기 연구」, 『국제어문』 36, 국제어문학회, 2006.4, 75~115쪽; 안대회, 「조선후기 소품체 유기의 연구」, 『대동문화연구』 7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2.9, 211~243쪽; 정우봉, 「동아시아 산수기행 문학의 문화사적 조명 ; 조선 후기 유기(遊記)의 글쓰기 및 향유방식의 변화」, 『한국한문학연구』 49, 한국한문학회,

기가 유가적 도(道)의 실현 과정으로 수렴되었던 것에 비해, 임병양란 이후의 그것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에 집착하지 않고 산수의 미(美)를 있는 그대로 즐기고 묘사하는 과정으로 변모하였는데, 그 구체적 양상을 옥소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해산록>은 18세기 전반기 필기잡록화(筆記雜錄化) 방식을 대표하는 작품으로³⁾, 혹은 다양한 모델의 문체를 실험한 작품으로⁴⁾ 언급된다. 필기잡록화의 방식이란 유람의 여정에서 보고 들었던 견문들을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자재로 기록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옥소의 <해산록>이 그러한 당대 산수유기 글쓰기 방식을 실험적으로 시도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한편 옥소의 「유행록」에 대한 독자적 연구는 옥소의 산수유람에 대한 동기와 의식을 구명하려는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 최호석은 옥소의 산수유람에의 동기를 여행의 즐거움으로 이해하고, 이를 완상의 즐거움, 일탈의 즐거움, 동반의 즐거움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⁵⁾ 옥소의 산수유람이 조선전기 양반사대부의 관념적 구도와는 차별적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유람기에 담긴 내용적 특성을 재확인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홍성욱도 옥소의 산수유람에 대한 동기를 기사환국(己巳換局)의 시대적 배경 및 개인적 불운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유람 과정에서의 탐승과 흥취를 현실과 분리된 산수공간에서 누리는 그의 정신적 자유를 실현한 과정이라 정리하였다.⁶⁾ 이상희도 유람을 향한 갈망,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 불가와 도가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옥소의 산수유람이 지닌 동기와 특징을 구명하였다.⁷⁾

2012.9, 102~137쪽; 강혜선, 「옥소 권섭의 기행시문 연구」, 『한국한시연구』 18, 한국한시학회, 2010.10, 259~287쪽 등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3) 정우봉, 앞의 논문, 2012.9, 114~115쪽 참조.

4) 안대회, 앞의 논문, 2012.9, 229쪽 참조.

5) 최호석, 「여행의 즐거움-옥소 권섭의 산수유기」, 『은지논총』 21, 은지학회, 2009.1, 155~180쪽.

6) 홍성욱, 앞의 논문, 2006, 75~115쪽.

7) 이상희, 「옥소 권섭의 유행록에 나타난 작자의식」, 『동양예학』 37, 동양예학회, 201

이상의 성과를 통해 옥소의 산수유람의 동기와 양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 산수자연이 현실과 분리된 공간으로 혹은 일탈의 공간으로 논의되거나 산수유람의 의미가 호기심과 즐거움을 소비하는 개인적 취향과 경험으로만 정리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옥소에게 유람은 스스로 선택한 그의 삶 자체였고, 산수자연은 그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경험의 공간이었다. 시대를 풍미했던 명문 권력가에서 태어났으나, 거둬드는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버지이자 스승의 역할을 했던 백부 권상하의 죽음과 아들의 죽음을 그대로 목도해야 했던 그에게 삶과 현실은 그 누구보다 직면하기 힘든 대상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그의 노년은 경제적으로도 그리 풍요롭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더 강인하고 더 멋진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를 버리지 않았고, 산수유람을 통해 다양한 미적 체험을 경험하며 스스로의 삶을 조형해 나갔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글을 풍부하게 남기기도 했다. 이에 그가 남긴 시나 글, 특히 산수유기에 투영된 옥소의 웃음과 여유, 그리고 탐미의식의 정체는 무엇이었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좀 더 세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점은 옥소라는 개인적 차원과 조선후기라는 시대적 제한에 머물지 않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하되, 유행록에 나타난 대상체험의 양상을 자연, 사람, 문화로 나누어 살피고, 그것을 통해 옥소의 산수유람과 유람기가 지닌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II. 기승(奇勝)을 통한 낮설음의 체험과 승고

<자술연기(自述年紀)>와 유산기를 통해 볼 때, 옥소의 유람은 전 생애

7.6, 277~311쪽.

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유람지는 전국적인 분포를 나타낸다.⁸⁾ 아울러 그는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북관(함흥) 여행을 감행하였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일생에 단 한번 하기도 어려웠을 금강산 여행을 두 번이나 하는 등 산수유람에 있어서만은 기인적 면모를 보였다. 다음은 옥소의 산수유람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1) 내가 한평생 나라 안을 살살이 돌아다녔어도, 유독 함경도 길만은 꿈속에서 아른아른거리려 생각이 그치지 않았다. 이제 사촌 동생 자장이 함경도 감영에 관찰사로 있으면서도 나를 늙은이로 여겨 사람을 보내 맞아 주지 않아서, 내가 자비로 나서려 하니 아이들과 여러 친족들 모두가 애써 말렸다. 내가 웃으며, “만약 안락하다고 하여 앉아 있는 것을 편안히 여기거나, 늙고 병들어 지치고 쓸모없다면 가지 않는 것이 옳겠지만, 지금 나는 손자를 묻은 슬픔을 금할 수 없고, 또 주리고 고달프다고 집에 가만 앉아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한 해 중 절반 이상을 이리저리 떠돌며 아무 산 아무 절이나 머물렀으니, 내 운명의 고뇌가 이와 같았다. 또 귀와 눈도 밝고 정신은 맑고 굳세기가 젊은 날과 같으니, 한 번 나가서 편안하고 즐거운 곳에서 지내며 남은 나날을 보내려는 것이, 도대체 왜, 어째서 안 된다는 말이나?” 하니, 한결같이 모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손을 내저었다.⁹⁾

위의 글은 87세 때 북관 유람의 체험을 담은 <원유기(遠遊記)>의 일부이다. 그가 산수유람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각 지역의 관찰사로 부임해 있던 그의 가족이나 친척들의 역할이 컸다.¹⁰⁾ 그가 북관 유람의 기회를 잡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다만, 고령의 나이를 걱정하여 가족과 친척 등 주변의 반대는 매우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지를 꺾지 않았으며 북관 유람을 과감히 실행했다.¹¹⁾ 마침 북관은 그가 평생 동안 가보지 못한 지역이었기에 유

8) 홍성욱, 앞의 논문, 2006, 83~85쪽.

9) 『玉所稿』, 『遊行錄』, <遠遊記> 玉所翁一生蹤跡遍國中 獨北關一路 耿耿在夢 想不已 今從弟子章坐其營 而以我爲篤老 而不遯去 我欲自資而出 兒輩與諸族 皆力止之 翁笑之曰 若安樂而晏坐 若癡癡而疲劣 則止之可也 今翁不禁埋孫之涕淚 又不堪飢困而坐於家 一年強半 浮游漂迫 而在 何山之何寺 身名之苦惱如斯 又耳目聰明 神氣清健 如少日一出而往在安樂之地 以消餘日 何不可何不可 一皆搖頭揮手

10) 홍성욱, 앞의 논문, 85쪽.

람에의 욕구는 더욱 컸다. 그는 87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귀와 눈이 밝고 정신은 맑고 굳세기가 젊은 날과 같다.’고 하면서 산수유람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처럼 그의 산수유람에 대한 애착과 실행¹²⁾은 『유행록』 곳곳에 나타나는데, 주목할 점은 특히 기이한 경관이나 위험 요소가 많은 곳일수록 유람에의 욕구를 더 강하게 드러낸다는 점이다.

(2) 작년에 금강산에 들어갔을 때도 가는 곳마다 위험한 곳을 밟았는데, 반드시 빠어난 볼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미친 듯한 행동도 후회하지 않았고, 넘어지더라도 “칠십 늙은이가 죽어서 이곳에 뼈를 묻는다면 다행할 뿐”이라고 했었다. 지금 과근엄 일을 다시 생각해 보아도 오랫동안 두려움이 남아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것은, 바라는 것이 금강산과는 달랐기 때문이지만 이미 이 산을 보았으니 반평생의 빛은 깊은 셈이다.¹³⁾

위험한 곳이라도 빠어난 볼거리가 있다면 미친듯한 행동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곳에서 죽어 뼈를 묻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다. 산수유람에 대한 열망, 특히 기승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큰 지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스스로도 산을 오르는 일이 무엇이길래 몸과 목숨을 이토록 가볍게 여겼는지 후회가 멈추지 않는다고 자탄하기도 했다.¹⁴⁾

그가 이토록 기이하고 위험한 곳을 선망한 이유는 무엇이이었을까? 물론 자연을 현실과 분리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거기에서 정신적 자유와

11) 그는 약 4개월 동안 북관을 유람하였는데, 동년배 기생 가련(可憐)과 만나 시조와 한시로 정신적 교감을 나누었다.

12) 옥소는 스스로 자신의 이러한 산수유람에 대한 욕망을 ‘뿌리깊은 습관[結習]’이라고 말하고 있다(이상희, 앞의 논문, 2017.6, 281~282쪽).

13) 『玉所稿』, 『遊行錄』, <叢南錄> 昨年金剛之入 到處躡危 必有奇觀 故不悔狂 而顛倒曰 “老七十而死 藏骨於此中間 幸耳 今之追思波根事 則餘悸至久而未定 以其所大欲不同 已見茲山 已酬半生之債矣

14) 『玉所稿』, 『遊行錄』, <叢南錄> 遊山是何事 而輕身命乃如此 悔亦不已 (이상희, 앞의 논문, 2017.6, 281 재인용)

일탈을 꿈꾸었기 때문일 수 있다.¹⁵⁾ 그러나 이렇게만 설명하기에 기승과 위험한 곳에 대한 그의 갈망은 너무 크고 특별하다. 이와 관련하여 그의 탐미의식¹⁶⁾ 혹은 심미욕구¹⁷⁾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해유록>의 ‘자득록’에는 탐승의 경험이 장면화 되어 있고, 경험의 미적 구현이 충분히 실현되고 있어 미적 체험의 정체와 그 과정을 살피기에 적절하다.

(3) 망고대는 내금강의 중앙에 있는데, 비로봉 다음으로 높으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가파른 봉우리와 기이한 절벽은 땅을 뺏아 올려 하늘을 범할 듯하고, 사방이 온통 흰색뿐인데, 안팎이 탁 트이고 온갖 아름다움을 다 모아놓았으니 마음만 그것을 알 뿐, 입으로는 형언할 수도 없이 놀랍고 아찔하여 황홀하고 명하여, 비로소 이 산 말고는 다시 이런 산은 없다는 걸 믿게 되었다. ¹⁸⁾

(4) 내가 피리장이에게 물래 사자봉에 올라가서 암벽 사이에 몸을 숨긴 채 낮은 소리로 피리를 불게하고, 동자 조수천에게 푸른 옷을 입혀 그 곁에서 있게 했더니, 일행들이 피리 소리에 깜짝 놀라 만폭동을 왔다갔다 하면서 아래위로 찾으며 쳐다보았지만, 있는 곳은 안 보이고, 다만 청의동자가 나무 그늘 사이로 숨었다 나타났다가 하는 것만 보이니, 간혹 진짜 신선이 내려온 줄로 여기는 듯했는데, 나 또한 내가 시켜서 한 일인 줄도 잊은 채 멍하니 서있었다.¹⁹⁾

15) 홍성욱, 앞의 논문, 2006, 80쪽.

16) 홍성욱, 앞의 논문, 2006, 80쪽.

17) 옥소의 기승(奇勝) 추구의 동기와 옥망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홍성욱은 기승 추구를 정신적 자유의 실현과 연결하여 논의하고 있으며(홍성욱, 앞의 글, 96~105쪽), 이상희는 이와 더불어 옥소의 심미욕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되, 이상희가 언급한 심미욕구를 주목하여, 기승 추구의 동기와 체험의 과정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18) 『玉所稿』, 「遊行錄」, <海山錄>, ‘自得錄’ 望高之臺 在內山中央 其高亞於毘盧 登其頂而望之 峭峰奇壁 拔地干霄 四顧渾一白色 內外無障 衆美具集 有心獨知之 而口不可狀言者 神駭目眩 恍然自失 始信此山之外 更無此山 彼登嶽惺樓者 人人僅得望見衆香城 一面而曰 金剛儘奇絕 或曰 金剛無甚白 此不可與論此山

19) 『玉所稿』, 「遊行錄」, <海山錄>, ‘自得錄’ 余使一簫 潛上獅子峰 壁間隱身 而微吹之 又使壽天童子 青衣而立其旁 一行之人 聆之而驚疑 彷徨萬瀑洞 上下而求之 仰面而看不見其處 只見一青衣 隱顯於樹陰 間或疑其真有仙靈降臨 余亦忖然 不省其爲吾所教也

(3)과 (4)는 관동지역을 유람하고 쓴 글이다. (3)은 금강산 망고대의 풍경을 묘사하고, 그에 관한 감상을 서술한 부분이고, (4)는 사자봉에서 있었던 인상적인 일을 서술한 부분이다. (3)은 금강산의 풍광을 (4)는 풍광과 관련한 일화를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층위가 다소 차별적이다. 그러나 기승과 그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대하는 화자의 감정적 상태가 풍부하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함께 살필 수 있다.

(3)과 (4)에서 화자는 ‘입으로는 형언할 수도 없이 놀랍고 아찔하며 황홀하고 멍하여’, ‘내가 시켜서 한 일인 줄도 잊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라고 표현한다. 모두 강한 충격을 동반한 격한 감정의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자연의 기승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그것을 체험함으로써 신기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자득록’의 위와 같은 부분은 이러한 감정을 훨씬 넘어 있어 인상적이다. 서술자는 망고대의 풍광을 통해 강함과 거대함, 무한함을 체험하며, 사자봉에서의 장면을 통해서 대상을 알 수 없는 모호함을 경험한다. 자연의 압도적인 힘이 인간을 내몰아치는 순간이며, 화자는 놀라움과 황홀함을 넘어 멍한 상태에 이른다. 이른 바 ‘두려움에 물든 평온함’의 상태²⁰⁾, 즉 경외와 승고의 미적 체험과정이라 할 수 있다.

(5) 지친 말을 재촉하여 가다가 문득 고갯마루에 올라 눈을 들어 바라보니, 산은 동쪽에서 끝나고 동쪽에는 다시 땅이 없으며 검은 기운 한줄기가 남북으로 걸쳐져 있어 이리 보면 소나무 숲 같고 저리 보면 높은 산 같아서, 하늘이 그런 것인지 물이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분별이 되었지만, 마음이 두렵고 가슴이 두근거리려 안정이 되지 않았다.

물가 언덕에 이르자 무섭게 밀려오는 파도가 말발굽까지 미치는 듯하다가 곧 잠잠해져서는 무섭지는 않았고, 조각배가 의지할 곳 없이 바람을 타고 나타났다가 숨었다 하니 몸은 오히려 편안하고 마음은 더욱 환해졌다.²¹⁾

20) 박인철, 『현상학과 상호문화성』, 아카넷, 2015, 35쪽.

21) 『玉所稿』, 『遊行錄』, <海山錄>, 『自得錄』 倦馬行行 忽然登嶺 舉目而視之 山盡於東 東更無地 黑氣一道 橫亘南北 或似松林似崇岳 不知其爲天爲水 久乃辨之 心神悸難定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승의 풍광을 체험하는 장면이다. 산과 하늘 그리고 물은 늘 접하는 자연 대상물이지만,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 자연은 낯선 장면을 연출한다. 여기서 화자는 두려우면서도 설렌 감정을 경험한다. 물가 언덕에 이르러 상황을 조망하게 되자 비로소 마음은 안정되고 환해진다. 자아와 세계의 분리 상태에서 자아는 거대하고 낯선 세계 앞에 두려움과 모호함을 느끼다가 점차 주객이 합일되면서 비로소 편안한 상태에 이르는 모습이다.

‘자득록’은 산수유람 중 다양한 경험을 서술한 부분이므로, 여기에는 옥소의 다른 산수유기 작품과 비교할 때 대상 체험의 양상과 감정이 훨씬 풍부하게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 옥소는 기승 체험의 양상을 주로 표현했는데, 일상에서 느끼지 못한 새로운 세계, 예상치 못한 상황, 그리고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체험이 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체험은 화자를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오히려 일상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여 평소의 자신을 초월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옥소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 더 강하고 확장된 자신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옥소로 하여금 산수유람을 지속하고 기승에의 체험에 집착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승 체험의 공간인 자연은 언뜻 보기에 현실과 분리된 공간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평소의 자신을 초월하여 더 강한 자신을 만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현실과 밀접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²²⁾

Ⅲ. 친근한 만남을 통한 유대감 공유와 해학

옥소의 「유행록」에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수록한 부분이 많다. 이는 「

及行其側畔 驚濤蹴撞 或及馬蹄 而便妥帖 而不知惧 至扁舟憑虛 駕風出沒 而身愈安意愈曠

22) 박인철, 앞의 책, 2015, 232쪽 참조.

유행록」이 지닌 중요한 특징이다. <해산록>의 ‘동반록(同伴錄)’과 ‘접응록(接應錄)’에는 여행을 함께 하거나 자신을 대접한 인물들에 대해 짧지만 상세하게 서술해 두었고, 여타 다른 글에도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들에 대한 일화가 풍부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유행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옥소와 비슷한 위치에 있거나 자신보다 어리거나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여행의 풍류를 더해 줄 예인과 시중을 들어 줄 노비, 여행을 도와 줄 승려와 어린 아이 등이 그들이다. 이들 덕분에 여행은 풍류와 웃음이 함께 하는 경험이 되기도 한다.²³⁾ 그런데 이들을 대하는 옥소의 태도와 감정, 그리고 소통의 방식이 어떠한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이 세 사람은 말의 맵시가 매우 아름다우니, 어찌 비천하다 하여 쉽게 대하겠는가은 시도 잘 말하여 더욱 기특했다. ²⁴⁾

(7) 원형은 제법 잘 따르며 장난도 치고 하더니 채 반도 가지 않아서 아프다고 뒤쳐졌다. 다만 처훈, 종석, 수천, 익근은 비록 천민이었으나 능히 산수의 즐거움을 알고 어려움과 위험을 꺼리지 않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왔으니 자못 마음에 들었다. 수천은 열세 살 아이인데, 구룡연에 드리워진 밧줄과 등나무 사다리, 불정대의 썩은 나무다리, 망고대의 철쇄를 원숭이처럼 다니면서 마치 평지를 밟는 듯했다. 내 뒤를 바짝 쫓아와 뒤치지 않았으며, 또한 『논어』를 읽을 수 있어서 쉬는 곳마다 낭랑하게 읽었는데, 이것이 아주 좋았다.²⁵⁾

(6)의 세 사람은 초진 나루의 사공 송씨, 조진역의 역말을 돌보는 늙은이 김애영, 그리고 청간 나루의 사공 노인 김석립이다. 모두 천한 신

23) 최호석, 앞의 논문, 2009, 172~175쪽 참조.

24) 『玉所稿』, 「遊行錄」, <海山錄> ‘自得錄’ 此三人 言語風致 誠可喜 豈以卑賤易之 石立其口能言詩 尤可奇也

25) 『玉所稿』, 「遊行錄」, <海山錄> ‘自得錄’ 元洞馴狎可弄 而未半途 言病而後 獨處訓宗 石壽天益勤 雖賤 能解山水之樂 不憚艱危 終始隨行 差強人意 壽天十三歲童子 而九龍淵之垂索藤梯 佛頂朽棧 望高鐵鎖 緣行如猿 若履平地 躡我蹤而不後 其口又能讀論語 歇處使伊吾 此極可喜

분이기도 하고, 당시로서는 사대부의 유람길을 안내하거나 돕는 일은 그들의 당연한 소임이었기에 이들을 특별한 대상이라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옥소는 이들의 이름을 명기하였으며, 이들이 말한 바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그러면서 신분이 비천하다고 하여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7)은 여행에 동반한 이들에 대해 기록한 것인데, 그 대상은 천민들과 어린 아이들이다. 역시 각각의 이름을 명기하면서 이들을 매우 가깝고 친근한 대상으로 묘사하였다. 특히 어린 아이에 대한 옥소의 애정 어린 시선이 짧은 글 속에서 잘 드러나 있다.

이처럼 옥소는 유람의 과정에서 만난 이들 중 특히 자신보다 약하고 어리며 비천한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을 다정하고 친근한 대상으로 표현한다. 아울러 상호 교감의 대상으로 이들을 표현함으로써 그들과의 유대감을 강조한다.

(8) 지금 함산으로 오니 동갑인 노파 가련이 글도 알고 명성도 있어 내가 만나보니, 이 노파가 젊은 시절에 한양 밖까지 이름을 날렸기에 그 마음이 오만하고 안하무인이라 사대부 중에서 그리워하는 자는 겨우 몇 명밖에 안 되고, 동년배들을 보아도 별게 없어 꼽을 것도 없으니, 늙어서 물러난 뒤에는 신세의 고단함이 동년배보다 더욱 심하여 젊은 아이들이 모두 비웃고 업신여겨 한 사람도 왕래하지 않을 정도로 그 신세와 형편이 같으니 어찌 나와 함께 있겠는가마는, 내가 짐짓 그녀를 특별하게 대접해 주었다.²⁶⁾

가련은 옥소가 북관유람을 갔을 때 만난 동년배 기녀이다. 한때는 예기로서의 명성을 떨친 인물이었으나, 나이가 많아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지 오래되었고, 주변의 업신여김을 받는 처지에 있었다. 옥소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지만 ‘짐짓 그녀를 특별히 대접해’ 준다. 이후 그는 가련과 주고받은 노래와 시를 <번노파가곡십오장(翻老婆歌曲十五章)>, <답기

26) 『玉所稿』, 「遊行錄」, <遠遊記> 有老婆可憐 又是同甲 又解文而有聲名 我爲之賜顏 此婆少時 擅名京外 故其志傲兀 眼下無人 多少士夫中慕仰者 莖數人 視同輩亦不足數 老退之後 身世之孤單 莫甚同輩 少年皆譏笑而侮甚 無一人來往 其身名一 何與我同也 我故待之有別

함파(答寄咸婆)〉로 한역하기도 했다. 기녀와 사대부의 애정을 노래한 작품은 다수 있으나, 노년의 교유와 상호 교감의 진실함을 담은 작품은 많지 않기에 이들은 특별한 작품이다.²⁷⁾ 이러한 교유와 작품 창작의 양상은 약한 자에 대한 애정어린 시각과 열린 마음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9) 임신년(1752) 7월20일, 둘째 아들 덕성과 그의 막내아들 혜옹, 외손 김정주, 작은 손자 신응을 이끌고서 말을 타고 출발하니, 제천의 이춘화, 이양근, 동자 김중갑이 따라 왔다. 북쪽 동네의 자하동과 백운동을 지나 창의문으로 나오니 바위와 골짜기, 단풍나무와 삼나무는 이미 성 안과 풍경이 달라서 좌우를 둘러보니 마음이 상쾌했으며, 문을 나서니 곳곳의 주막이 또한 그림 같았는데, 채 10리를 못 가서 한 채의 나는 듯한 누각이 홀연히 눈앞에 나타나고, 좁은 길 좌우로는 흰 돌들이 소반처럼 펼쳐져 있으며, 몇몇 남녀들이 자리를 합하거나 무리를 나누어 좌자 지절하게 우스개를 주고받으며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또한 하나의 볼거리였다.²⁸⁾

(10) 주천대에서 아이들이 익숙한 솜씨로 헤엄치며 물놀이를 하는데, 대어섯 명씩 무리를 이루어, 발가벗은 몸으로 선두를 다투다가는, 가과른 절벽에 우뚝 선 돌에 올라가서, 거꾸로 뛰어내려 물속에 빠졌다가, 한참 뒤에 상류나 하류에서 조금씩 몸을 드러내고, 손가락을 드러내거나, 발가락을 드러내기도 하고, 등을 드러내거나 배를 드러내기도 하며, 더러는 온몸을 물 밖으로 냈다가 도로 잠겨서, 위로 보기도 하고, 아래로 보기도 하고, 서거나 앉기도 하면서, 온갖 몸짓으로 신기하게 노니, 그 재주가 정말 볼 만하였다.²⁹⁾

27) 이권희, 「기녀와 한문학: 옥소 권섭의 가련의 경우」, 『동방한문학』64, 동방한문학회, 2016, 121~143쪽; 장정수, 「옥소 권섭의 시조 한역시 <번노파가곡십오장> 및 관련 작품에 대하여」, 『어문론총』44, 한국문학언어학회, 2006.6, 223~250쪽 참조.

28) 『玉所稿』, 「遊行錄」, <十乘遊記題帖末> 壬申七月二十日 携仲房子德性 其小子惠應 外孫金鼎柱 小孫信應 騎馬而出 堤川之李春華楊根 童子金仲甲從 過北洞之紫霞洞白雲洞 而出彰義門 岩壑楓杉 非城市前頭 左右指點 意境蕭爽 出門 處處山店 又似畫圖 行未十里 一飛閣忽然出眼前 夾路東西 白石布展 如盤如床 幾男幾女 合坐分隊 洗滌聲亂 雜以諧謔 亦一光景

29) 『玉所稿』, 「遊行錄」, <海山錄> ‘自得錄’ 酒泉臺 兒童慣泗水戲 五六成羣 裸體爭先 登孤山壁立之石 倒首躍投 沒入水中 久而後稍稍露形於上流或下流 或露手指 或露足指 或露背而露胸 或出全身而還潛 或仰或俯 或立或坐 百態呈奇 其才絕可翫

(9)와 (10)은 여행 중 만난 이들의 모습을 표현한 장면이다. (9)에서는 몇몇 남녀들이 무리를 이루어 서로 희롱하거나 일상을 이어가는 모습이고, (10)은 아이들의 물놀이 장면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옥소는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의 모습을 하나의 풍경으로 관찰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바라보는 옥소의 시선은 수평적이고, 충분한 정감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글의 분위기는 유쾌하고 즐겁다. 이러한 양상은 다음 글에서도 잘 드러난다.

(11) 연말에 광주를 지날 때, 광주 태수 이자수와 동생인 옥천 태수 이자유가 여러 날을 나에게 와서 함께 머물렀는데, 정의가 유별났다. 선달 그믐날 태수에게 말을 빌려 무등산에 오르니 따뜻하기가 봄날 같고, 산에는 잔설도 남아 있지 않아 내가 “겨울 산행에 작은 모자도 쓸 필요가 없으니 이상하도다!”하니, 승려들이 “선달 그믐날 산에 오르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하여 함께 웃었다. 30)

동생이 태수로 있는 지역에 유람을 갔고, 그 도움으로 말을 타고 산을 오른다. 유난히 따뜻한 겨울 날씨를 느끼며 옥소는 산행의 충분한 기분을 드러낸다. 그런데 옥소와 함께 한 승려들은 예상외의 반응을 나타낸다. 추운 날 굳이 산에 오른 옥소를 살짝 탓하는 듯하다. 사대부의 유람에 승려들은 예를 갖추어 응대해야 한다는 통념은 깨지고, 상황은 웃음으로 마무리된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간의 유연한 농담과 가벼운 공격이 가능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옥소의 대상을 대하는 태도와 열린 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이처럼 타인에 대한 옥소의 태도는 대체로 개방적이고 친근하다. 그러나 가끔은 옥소에게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했을 것이다.

(12) 해산정에서 이상하고 버릇없는 나그네들을 잇달아 본 일이 또한 한층 내 흥취를 돋우었다. 자옥한 안개가 하늘을 가려 외급강 칠성도가 모두 없어졌으니

30) 『玉所稿』, 「遊行錄」, <南行追記> 臨歲 過光州 太守李子壽 與弟沃川太守子有 連日出宿于我 別有情誼 除日 借上騎於太守 上無等山 日暖如春 山無點雪 余曰 冬日遊山 不着小帽子 可異 僧輩曰 除夕遊山 亦可異 與之一笑

저들이 이곳에 올랐다고는 하나 어찌 그것을 알겠는가? 아침 해와 흰 구름이 별안 간에 솟아오르자 만이천봉이 금강산 꼭대기에 펼쳐졌지만 태수는 잠에 취해 보지 못했으니. 나그네들과 태수 중에 누가 더 나올까? 나도 모르게 한바탕 웃었다.³¹⁾

위의 글은 <속해산록>에 수록된 글이다. 유람의 과정에서 여느 때와 달리 이상하고 버릇없이 여겨지는 이들을 만났다. 옥소는 그들이 금강산을 올랐다고 하지만, 자연의 진면목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 폄하한다. 실제 안개가 끼여 그럴 수도 있고, 마음의 벽으로 산수의 진경을 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이들이기에 옥소는 그들의 산수유람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다가 해가 솟아 금강산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그때 옥소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중 한 명인 태수를 본다. 태수 역시 잠에 취해 금강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이에 옥소는 ‘나그네와 태수 중에 누가 더 나은가’라고 자문한다. 스스로 판단 중지를 선언한 것이다. 연달아 터지는 웃음은 자신의 선부른 오해와 판단에 대한 스스로의 깨달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상에 대한 시각과 대상을 대하는 태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러한 시각은 옥소의 다음과 같은 글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13) 소인이라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니 소인도 대든다. 천한 자라고 해서 소홀히 대하지 말아야 하니 천한 자도 기롱할 줄을 안다. 그러니 무릇 말을 하거나 일을 행할 때는 터럭만큼도 함부로 해서 안 된다. 금수나 곤충 같은 미물도 모두 지각이 있는데, 어찌 사람이 바로 그 옆에서 전혀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겠는가. 그 입은 비록 다물고 있지만 그 눈빛은 빛나고 그 조잘대고 웅얼거리는 소리를 사람들은 조잘대고 웅얼거리는 소리로 듣지만 그들은 서로 생각을 전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또 한 측면에 뛰어난 것이 있으니 범과 이리의 부자관계, 벌과 개미의 군신관계, 비둘기의 암수사랑, 기러기의 우애, 수달의 체사, 양이 풀어앉아 젖을 먹이는 것, 개가 주인을 따르는 것, 말이 길을 아는 것, 거북이가 은혜에 보답하는 것,

31) 『玉所稿』, 『遊行錄』, <續海山錄>, 海山亭中 連見怪客慢客事 亦助我一段遊興 大霧埋天 外金剛七星島 皆無處 怪客慢客登臨 何以知之 朝日白雲 起於倉卒 別般萬二千峰 橫列于金剛上頭 獨太守睡意重而不見 與怪客慢客誰勝 不覺一胡盧

봉황이 덕을 보고 내려오는 것 …<중략>… 현종의 코끼리가 안록산 앞에서 춤추지 않고, 치종의 답이 이치를 말하고, 혜원 법사의 거위가 불경을 경청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땀나게 했던가. 사람들이 서로 꾸짖을 때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고 욕하면 화를 내지만, 금수로 하여금 이런 말을 듣게 한다면 금수의 노여움이 그들보다 더 심할 것임을 모른다. 요컨대 독서를 하지 않으면 면하기 어렵다.³²⁾

소인과 비천한 자, 심지어 금수에 이르기까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 그들도 모두 지각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 자체로 존재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들 간의 긴밀한 관계와 존재 자체의 품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옥소가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그의 관점은 산수유람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고, 비록 비천하고 작고 어린 대상이지만 이들과의 친근한 유대를 통해 여행은 더욱 유쾌하고 즐거운 체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IV. 고정관념의 탈피와 이(異)문화에 대한 공감

옥소의 「유행록」에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과 서로 다른 문화와의 만남, 이를 통한 재미와 깨달음의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³³⁾ 이러

32) 『산록내편(散錄內篇)』勿以小人而侮之 小人亦有對頭 勿以賤隸而易之 賤隸亦知識 則凡出言行事 不可一豪放過矣 禽獸昆蟲之微 亦皆有知覺 人豈可全無忌憚於其旁側乎 其口雖噤 其目則炯然 其啁啾嚙吟 人雖聽之以啁啾嚙吟 渠則是自相傳說之者矣 且其有一處之通知 虎狼之父子 蜂蟻之君臣 雉鳩之夫妻 鴈之兄弟 獺之祭先 羊之跪乳 犬之恋主 馬之識道 龜之酬恩 鳳之覽德…<中略>…玄宗象之不舞祿山 處宗鷄之談理 惠遠鵝之聽經者 又汎乎幾箇人之類乎 人之相詬詈 以禽獸加之則怒之 不自知其使禽獸反受之 其怒又有甚於渠者 要之非讀書難乎免矣(『산록내편(散錄內篇)』의 번역서가 이창희, 장정수에 의해 곧 출간될 예정이며, 본고는 이들의 출간 원고를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33) 특히 불교 및 도가와 관련한 일화를 통해 그의 수용적 태도를 확인한 연구를 주목할 수 있다(이상희, 앞의 논문, 2017.6, 300~308쪽 참조). 여기서는 이를 바탕으로 하

한 장면은 앞서 언급한 대상에 대한 친근감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대상 인식의 측면과 이문화에 대한 옥소의 시각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기존의 관념과 고정된 사고를 탈피한 시각의 전환이 나타난 부분을 살펴보자.

(14) 석불암에서 묘찬을 만났는데, 그 사람됨이 단정하지는 않으나 경문은 조금 알았다. 작은 굴속에 앉아 함께 이야기하다가, “금사사의 흰모래가 좋습니까?” 하고 묻길래, 내가 장난스레 그 앞의 누런 모래를 가리키며, “이것과 무엇이 다를꼬?” 하니, 묘찬이 놀라며 “그렇군요, 바꾸어 생각하면 같군요!” 하고는 “바닷물은 좋습니까?” 하고 내게 묻길래, 장난스레 그 속의 얇은 웅덩이를 가리키며, “이것과 무엇이 다를꼬? 하니 놀라면서” 그렇군요. 이것을 펼치면 같군요. “하였다. <중략> 묘찬이 웃으며 일어나더니 이전처럼 따라왔는데, 마을에 도착하여 숨은 바람에 놓쳐 버렸다. 그가 바로 환생한 승려가 아닐까? 선비로서 말할 바는 아니지만, 그의 먹줄과 자와 큰 줄 이야기는 또한 얼마나 기이한가? 나는 그가 불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인지 단을 사람인지 의문스러웠다.³⁴⁾

옥소의 유람과정에서 만난 묘찬이라는 승려에 대한 이야기이다. 옥소의 『유행록』에는 이처럼 불가와 도가에 대한 일화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옥소의 유연한 사고, 수용적 태도의 사례로 언급되어 왔다.³⁵⁾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시각의 전환을 통한 고정관념의 탈피이다. 금사사의 흰모래에 대한 질문에 눈앞의 누런 모래를 가리키고, 큰 바닷물에 대한 질문에 눈앞의 웅덩이를 언급한다.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금사사의 흰모래와 눈앞의 누런 모래, 큰 바닷물과 얇은 웅덩이를 각각 같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각을 전환해 보면 그것은 각각 모래와 물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 결국 시각의 전환은 고정관념의

되, 대상을 바라보는 그의 열린 시각과 이문화에 대한 수용의 양상에 대해 좀 더 세밀히 살펴보기로 한다.

34) 『玉所稿』, 『遊行錄』, <西行追記> 逢妙贊於石佛庵 爲人不端的 而經文則粗識之 與坐語於小窟中 問我 金沙寺之白沙 好乎 余戲指其前黃沙而曰 與此何異 贊驚歎曰 然矣 易視則同 問我 海水好乎 又戲指其中淺窪而曰 與此何異 又驚歎曰 然矣 演是則同

35) 이상희, 앞의 논문, 2017, 300~308쪽 참조.

탈피를 넘어, 대상의 본질에 다가가는 중요한 방법임을 알게 된다.

(15) 정문청 공의 관동별곡에, ‘일출을 보기 위해 한밤중에 일어나 앉으니 상서로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옥룡이 떠받쳐내듯 처음 바다 밑에서 나올 때에는 온 세상이 화려하게 일렁거리더니, 이윽고 하늘 위로 떠오르니 터럭을 셀 만 하였다.’고 하였는데 오늘 내가 본 것은 너무도 조용하고 평온하여, 돌아와서 본 것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기에, 선배들의 기록을 살펴보니 또한 모두 관동별곡에서 말한 바와 같았다. 저들이 보고 생각한 것은 바람과 물결에 출렁거렸으므로 이와 같지는 않았을 것이니, 오늘 본 것이 바로 일출의 참모습임을 알았으나, 다시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바람 불고 물결치는 날에 일출을 보고서 누가 옳은지를 비교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 다만 해가 바다 위로 나오는 것은 하늘이 밝아진 뒤에나 있는 것이니 사람들이 보는 것과 견주어 보면 조금 빠르는데, 저들이 한밤중에 일어나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³⁶⁾

시각의 전환은 있는 사실을 바꾸어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관습이나 왜곡을 초래하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것도 시각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듯 고정관념은 대상의 본모습을 왜곡하거나 가릴 수 있다. 따라서 오래된 고정관념에 빠진 시각에서 벗어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사실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철의 <관동별곡>에서 묘사된 해돋이 장면을 전범으로 삼아 기록하는 관습을 이어 왔다. 그런데 옥소는 자신이 본 해돋이 장면을 토대로 선인들의 묘사가 실재에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고, 이전의 관습적 묘사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대상의 본질을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범과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함을 보여준 것이다.³⁷⁾

36) 『玉所稿』, <海山錄> ‘自得錄’ 鄭文清公 關東別曲中有云 爲看日出 中夜起坐 祥雲葱籠 六龍擎出 初離海底 滿國爛熳 俄昇天中 毫髮可數 今吾之觀 極是從容穩籍 故來語之 人人皆不信 考之前輩之記 亦皆如別曲所言 彼其所見意者 風濤所盪漣 故與此不同 則信知今所見 是日出之眞景象 恨不復留幾日 值風濤日 見之以較勝負 但日輪之出海上 在天明後 比人間之觀 差早 彼中夜起坐者 何謂

37) 이러한 모습은 명승지를 유람하면서 자신이 확인한 바를 토대로 대상의 위치나 거리의 오류를 수정하여 기록하거나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경치의 우열을 다시 정하는 모습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실재에 다가가려는 옥소의 시각은 유람 중 경험한 이문화에 대한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그가 부산을 유람하면서 만난 왜인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서술이다.

(16) 왜인 객사는 제도가 장려하고 기물은 정교한데 제법 사는 왜인들의 방에는 모두 조롱 속에 십여 마리의 새가 있고, 법당은 황금빛과 푸른빛이 영롱하며 그림들이 현란하였다. 관수의 집에는 아주 아름다운 부사산 그림 족자가 걸려 있고, 정원에는 수마석을 배치하고 꽃나무를 뒤섞어 심어 놓았는데, 대나무와 소나무 몇 그루가 당당하였다.³⁸⁾

(17) 왜인은 머리를 빨강게 밀어버리는데 귀 뒤로부터는 머리털을 남겨두어 동백 기름을 발라 머리 뒤에 상투를 틀어 놓는다. 어린이는 머리 위쪽만 깎고, 나이에 따라 점점 넓게 깎아 나간다.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모두 바지는 없고 소매는 짧아서 팔꿈치가 보인다. 존귀한 손님은 바지를 입고 모두 검은 옷을 입으며, 더러 아래가 좁고 발꿈치까지 미치는 얼룩덜룩한 긴 옷을 입기도 하는데, 귀한 사람은 허리띠에 칼 두 자루를 차고 있다. 신발은 모두 풀로 만들었는데, 앞을 끈으로 빙 둘러서 발가락 사이를 묶고 비가 오면 신발 밑에 나무 조각을 덧댄다.³⁹⁾

왜인들이 거처하는 공간, 그들의 머리와 의복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해 놓았다. 동향사는 조선시대 사찰의 역할과 조일간 외교문서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한 곳이었다. 당시 조선은 왜인들을 야만인으로 여겼고, 필요에 의해 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조선인과의 교류 및 왕래는 철저히 제한하였다. 옥소는 동래지역을 유람하는 동안 동향사에 들러 왜인들의 생활공간과 풍습 등에 대해 자세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세밀한 기록을 남겨두었다. 다음은 왜인들의 문화에 대

38) 『玉所稿』, 『遊行錄』, <南行日錄> 倭館制度壯麗 器物精妙 上中倭之房 皆有籠鳥十餘 寺之法堂 金碧玲瓏 畫版炫耀 館帥之堂 則掛富斯山畫簇 極佳 庭排水磨石 雜植花樹 笋松數三 昂髯

39) 『玉所稿』, 『遊行錄』, <南行日錄> 倭人赤剃其頭 自耳後存髮 以冬柏油 安髻於後 童子則只剃頂上 逐年歲而漸剃之 貴賤皆脫袴短袖 及肘而見 尊客則着袴 皆衣黑而或着斑布長衣 下狹及踝 而貴者有腰帶佩兩劍 履皆草織 而繩繞于前 半貫于足指間 雨則履下着木片

한 옥소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 (18) “귀인께서 몸소 오셨는데 예법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법도를 보니 아주 이상하던데, 네가 우리를 보는 것도 또한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법도는 극도로 좋으니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일찍부터 너희들은 잘 속인다고 들었는데 너는 어째서 그렇게 순박하냐?”
“하하, 각기 그 사람의 됬됨이에 있습니다.”
“너희 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불과 같다던데 사람마다 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타고난 성질은 같지 않으니 너그럽고 느슨한 사람도 많 습니다.”
“성을 내면 그런 사람도 또한 열화 같기는 마찬가지가 아니냐?”
“성 내면 그렇습니다.”⁴⁰⁾

위의 글에서 옥소의 시각이 왜인들의 문화를 폄하하거나 알보는 어느 시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의 법도를 보니 아주 이상하던데, 네가 우리를 보는 것도 또한 그렇지 않느냐?”라는 물음은 상대의 문화가 자신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과 같이 상대 또한 자신의 문화를 이상하게 볼 수 있다는 전제인데, 이문화를 접하는 상대주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왜인과의 대화를 그대로 서술해 놓음으로써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왜인들의 언어와 비언어적 특성을 함께 서술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이해의 과정을 확장해 간다.

- (19) 왜인은 사람을 부를 때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고맙

40) 『玉所稿』, 『遊行錄』, <南行日錄> 貴人辱臨 不敢當禮 余問 我見爾輩之制 頗異 爾見我 亦然否 曰 不然 其制極好 我何敢望 余問 嘗聞爾人多詐 爾何淳實 笑曰 各在其人 余問 爾國人性烈如火 人人皆然否 曰 不然 稟性不同 亦多有寬緩者矣 余問 發怒則寬緩者 亦同於烈火乎 曰 此則然矣

게 여겨서 기뻐하면 반드시 등을 쓰다듬으면서 웃는다. 우리가 장난삼아 욕을 하면 웃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답을 한다. 성을 내서 꾸짖으면 갈을 든 것처럼 달려드는데, 크게 소리치면 웃으면서 물러간다.⁴¹⁾

언어 못지않게 손짓이나 표정 등의 비언어적 특성은 문화의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옥소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바에 더하여 왜인들의 의식주 문화와 그들의 언어적 비언어적 특성에 대한 사항도 언급해 두었다. 이는 왜인들의 문화적 정보를 설명해 두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왜인들에 대한 관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편견의 해소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순한 호기심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옥소의 시각과 태도는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의 문화를 평가하거나 상대를 자신의 문화에 동화 혹은 배제하려는 일방향적 인식에서 벗어나 있다. 아울러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대상을 무조건 동정하는 태도와는 다르다. 양자 사이의 이질감을 전제로 하면서 어느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고 상대의 문화를 알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대상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공감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태도이다.⁴²⁾

이상으로 「유행록」을 통해 고정관념 탈피와 이문화에 대한 공감의 양상을 확인해 보았다. 고정관념의 탈피와 이문화에 대한 공감은 대상의 실체와 본질에 다가가는 인식론적 방법이며, 대상을 통해 자신의 편견을

41) 『玉所稿』, 『遊行錄』, <南行日錄> 倭人喚人時拍掌 作犬嚙聲 喜謝則必撫背而笑 我人戲辱之則笑答曰 爾是吾子 怒叱之則擬劍而疾趨 若大喝則笑謝而退

42) 물론 옥소의 시각과 관점이 상호인정의 단계로까지 나아갔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 왜인의 사람됨이 영리하고 쾌활하여 사랑할 만했다(其倭爲人伶俐樂易, 極可愛).’,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나오지 않고 숨어 있으면서 군데군데 모여서 보는데, 사람들이 매우 사랑할 만했다(以我爲尊貴人, 故倭不亂出, 隱身而處處聚見, 其人有極可愛者).’ 라는 표현을 통해 볼 때 왜인들을 자신과 대등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왜인에 대한 혐오나 폄하의 시선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해소하고 세계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장하는 중요한 기회였다. 이러한 양상은 옥소의 유람이 지닌 중요한 의미이자, 「유행록」이 지닐 수 있는 문화적 의의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부분이다.

V. 옥소의 산수유람이 지니는 의미

옥소는 인생 대부분을 산수유람에 몰두하며 자연과 인간, 문화에 대한 다채로운 경험을 담은 「유행록」을 남겼다. 90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에 먼 곳으로의 유람을 감행하거나 기승 탐색을 위해 위험한 곳을 마다하지 않았기에, 주변에서는 걱정과 만류를 하기도 하고, 비웃음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체험을 기록으로 남기며, 다음과 같은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20) 늙은 나이에 이번 유람을 스스로 망령스럽다 여기지 않으니, 사람들도 나를 비웃지 못하고 부러워할 것이다. 오랫동안 험한 곳을 돌아다녔지만, 정신은 더욱 맑고 근력은 더욱 굳세며 꿈도 깨끗한 것이 어린 시절 같았다. 이와 같이 내년이 올 해 같고 내후년이 내년 같더라도 죽기 전에 또 이 같은 여행을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돌아와 집에 누웠으나 남은 흥이 들끓으며 그치지 않아, 이 유산기를 적어서 때때로 펼쳐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였다.⁴³⁾

산수유람에 대한 스스로의 자긍심과 기쁨을 피력하였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비웃음을 긍정적 자기 인식으로 대면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꾸어나갔다. 그리고 현실에 돌아와서는 유산기를 쓰고 음미하며 그 흥과 멋을 이어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옥소에게 산수자연은 현실과 분리된 일탈의 공간이거나

43) 『玉所稿』, 「遊行錄」, <八十一歲閑行錄> 高年斯遊 自非老妄 人無嘲我 必亦羨歎 涉險多日 神氣益嘉 筋力益健 夢魂亦清 如同少年之時 如斯如斯 明年又如今年 明明年又如明年 則未死之前 又將作此行 幾度否 歸來臥於家 餘興又勃勃不已 作此遊山記 時時披看 而自詎自笑

현실을 잊기 위한 도피의 공간이 아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는 산수자연 속에서 자아를 압도하는 거대한 세계를 체험하고, 친근한 사람들과 만나 웃음을 나누며, 열린 시선으로 다른 문화를 체험하였다. 여기서 그는 승고와 해학, 그리고 공감의 미적 체험을 경험한다. 이러한 미적 체험의 과정을 통해 그는 세계 속에서 자아를 확장시키고 자기 자신을 더욱 풍요롭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옥소는 정치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응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가 남겨 놓은 다양한 글이 이를 직접 보여준다. 그러하기에 그는 자기 스스로를 한탄과 원망 속에 방치하지 않았다. 그는 현실과 정치에서 개별적이고 소외된 존재였던 자기 자신을 능동적이고 의지적으로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기회를 그는 산수유람에서 찾았던 것이다.

(21) 내 생활이 두루두루 편하지만, 깊은 방에 울적하게 앉아 있으려니 갈수록 힘들어, 한 번 나가서 산사에 머물며 승려들과 담소도 하고 돌아와서 때대로 지락정, 낙민루에 오르고 싶었는데, 그 또한 나쁜 일이 아니며, 날마다 자장과 익살부리다가 때로는 양중과 다정한 말을 나누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니, 쓸쓸한 방에 들어가 누워서 과거의 득실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며 눈물로 지내는 것보다는 이처럼 설레는 마음을 편안히 여기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므로 한두 달 더 머문다고 무엇이 어려울까마는, 만약 아랫것들이 노망한 노인네가 아우의 관아에서 오래 앉아 있다고 골치 아프게 여긴다면 나그네인 나는 어찌할꼬!⁴⁴⁾

위의 글은 옥소가 자신의 삶을 우울과 한탄 속에 침체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스스로 즐거움과 설렘의 기회를 만들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때 산수유람의 체험은 옥소로 하여금 자신의 일상적 삶

44) 『玉所稿』, 『遊行錄』, <遠遊記> 我事亦甚周便 然鬱寂坐深室 久久爲難 欲一出而栖山寺 與僧輩笑語 歸又時登知樂亭樂民樓 亦非惡事 日與章台笑謔 時與良仲穩話 又非惡事 與其歸臥孤齋 涕淚度年得失何如也 抑此搖搖之志 以作晏晏之身 則一二月加留 又何難也 若下輩以老妄兄之久坐於弟官爲惱 客則奈何

에 대해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하는 계기였으며⁴⁵⁾, 자신을 세계 속의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존재로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기획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유산기인 「유행록」은 이와 같은 자신의 변화를 메타적 시선으로 확인하고, 현실과의 진정한 관계맺음을 시도한 글쓰기 행위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상으로 본고는 옥소 권섭의 「유행록」에 나타난 대상체험의 양상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옥소의 산수유람이 지닌 의미를 정리해 보았다. 산수유람과 여행의 과정에서 옥소가 체험한 대상을 자연, 인간, 문화의 층위로 구분하고, 대상체험의 양상을 기승을 통한 낯설음의 체험과 승고, 친근한 만남을 통한 유대감 공유와 해학, 고정관념의 탈피와 이(異)문화에 대한 공감으로 정리하였다. 이 과정은 옥소가 체험한 산수유람이 현실과 동떨어진 일탈 혹은 도피의 과정이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세계로 확장하고 연결함으로써 자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과정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그의 「유행록」 저술 또한 자신의 변화를 조형하고 현실과 관계 맺는 적극적 행위였다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동안의 연구가 옥소의 산수유람에의 동기 및 양상을 현실과 분리된 공간으로의 도피 혹은 일탈의 과정으로, 정신적 자유의 획득이라는 차원에서 주로 이해했다면, 본고는 대상체험의 양상을 미적 체험과 연결하여 이해함으로써 산수유람의 동기와 의미를 차별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옥소의 산수유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형하는 과정이었으며, 세상과의 적극적인 연결을 도모하는 기획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옥소는 평생에 걸쳐 유람을 했고, 그 경험을 많은 작품을 통해 남겼다. 이에 유람과 관련한 대상체험의 양상도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통시적 추이까지는 다 다루지 못했음을 밝힌다. 이에 대한 고찰은 다음으로 미룬다.

45) 박인철, 「이질감과 친근감, 상호문화성의 양면성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현상학과 현대철학』 50, 한국현상학회, 2011.9, 81쪽.

옥소 권섭의 「遊行錄」에 나타난 대상체험의 양상과 유람의 의미(최은숙)

※ 이 논문은 2021년 11월 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강혜선, 「옥소 권섭의 기행시문 연구」, 『한국한시연구』18, 한국한시학회, 2010. 10.
- 문경새재박물관 엮음, 『삼천에 구백리 머나먼 길 여행길』, 민속원, 2008, 1~400쪽.
- 박인철, 『현상학과 상호문화성』, 아카넷, 2015.
- 안대회, 「조선후기 소품체 유기의 연구」, 『대동문화연구』7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2.9.
- 이권희, 「기녀와 한문학: 옥소 권섭의 가련의 경우」, 『동방한문학』64, 동방한문학회, 2016.
- 이상희, 「옥소 권섭의 유행록에 나타난 작자의식」, 『동양예학』37, 동양예악학회, 2017.6.
- 이창희 역, 『옥소 권섭의 꿈세계-내 사는 것이 마치 그림 같은데』, 다운샘, 2003.
- 정난영, 「옥소 권섭의 「몽화기」 연구-내면세계의 흐름과 산수의 기능」, 『한민족문화연구』 49, 한민족문화학회, 2015.2.
- 정우봉, 「동아시아 산수기행 문학의 문화사적 조명 ; 조선후기 유기(遊記)의 글쓰기 및 향유방식의 변화」, 『한국한문학연구』 49, 한국한문학회, 2012.9.
- 장정수, 「옥소 권섭의 시조 한역시 <번노파가곡십오장> 및 관련 작품에 대하여」, 『어문론총』44, 한국문학언어학회, 2006.6.
- 최호석, 「여행의 즐거움-옥소 권섭의 산수유기」, 『온지논총』 21, 온지학회, 2009.1.
- 홍성욱, 「권섭의 산수 유기 연구」, 『국제어문』36, 국제어문학회, 2006.4.

Abstract

Kwon Seob's *Yuhaengrok* and Aspects of Object Experience

Choi, Eun-sook*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different aspects of object experience in Kwon Seob's *Yuhaengrok* (遊行錄). While previous studies have described Okso's landscape sightseeing excursions as a process of escaping or deviating from reality, only for the purpose of psychological liberation, the current study takes a different approach to the meaning of *Yuhaengrok* to understand object experience as connected to aesthetic experience.

The objects experienced by Okso as he engaged in these excursions can be divided into the layers of nature, people, and culture, in which the objects experienced through unfamiliarity still allow him to share in the bonds of closeness, friendship, and humor. Breaking free from stereotypes, he would find empathy for a different culture. Through this understanding of object experiences, one can see that Okso's travels were a process of expanding the mind and connecting his existence to the world, rather than a way to turn away or escape from reality. This demonstrates how his excursions were an active way to enrich his experience, and that *Yuhaengrok* promotes actively connecting oneself with the world.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

Kwon Seob, Okso, *Yuhaengrok* (遊行錄), excursions, landscape sightseeing, aesthetic experience, friendship, humor, empathy